

EXPO 2016 Antalya

기관방문 및 관광인프라 견학 결과보고

출장개요

- 기 간 : 2015. 12. 23.(수) ~ 12. 31.(목) / 7박 9일
- 방문국 : 터키(안탈리아)
- 출장자 : 7명(의원 4명 / 공무원 3명)
- 출장목적
 - EXPO 2016Antalya(엑스포 2016안탈리아) 기관 방문 및 한국정원 조성 부지 현장
 - 신재생 에너지 활용 사례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발굴
 -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정책 발굴



순천시의회
(의회사무국)

EXPO 2016 Antalya 기관 방문 및 관광인프라 견학 결과보고

- EXPO 2016Antalya(엑스포 2016안탈리아) 기관 방문 및 한국정원 조성 부지 현장
- 신재생 에너지 활용 사례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발굴
- 문화재 보존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 정책 발굴

1 개 요

기 간	2015. 12. 23.(수) ~ 12. 31.(목) / 7박 9일			
국 가	터키(안탈리아, 이스탄불)			
연 수 자	7명(의원 4명, 공무원 3명)			
구 분	성명	성별	직위(급)	비고
순천시의회 (의원)	김 병 권	남	의 장	연수총괄
	허 유 인	남	도시건설위원장	EXPO 2016 Antalya 기관방문
	정 철 균	남	의 원	문화·관광 정책분야
	김 인 곤	남	의 원	신재생 에너지 정책 분야
공 무 원	이 찬 성	남	행 정 6	연수 기록 및 일정관리
	서 승 환	남	행 정 7	연수 기록 및 정책자료 관리
	김 경 남	남	행 정 8	연수 기록 및 정책자료 관리

2 일 정

12. 23.(수) ·인천→이스탄불 ·이스탄불→안탈리아	⇒	12. 24.(목) ·엑스포 조직위 방문 ·한국정원 조성 현장	⇒	12. 25.(금) ·안탈리아 박물관 ·공원 견학	⇒	12. 26.(토) ·안탈리아→파무칼레→셀축 이동	⇒	12. 27.(일) ·에페소 유적 관람 ·카파도키아 이동
12. 28.(월) ·데란구유 지하도시 ·이스탄불 이동	⇒	12. 29.(화) ·그랜드바자르 방문 ·보스포러스 해협	⇒	12. 30.(수) ·지하저수지 ·이스탄불→인천	⇒	12. 31.(목) ·이스탄불→인천 ·인천→순천		

□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2.23.(수) 1일차	인천 이스탄불 안탈리아	14:25 ~ 19:15 (인천) (이스탄불)	·인천→이스탄불 (시차 -6시간/비행시간 11:50)	대 한 항 공 KE955
		22:55 ~ 00:15 (이스탄불) (안탈리아)	·이스탄불→안탈리아 (비행시간 1:20)	터 키 항 공 TK2426
12.24.(목) 2일차	안탈리아	10:00 ~ 12:00	·EXPO 2016 Antalya조직위 기관 방문 및 면담	기관방문
		13:00 ~ 18:00	·EXPO 2016 Antalya 한국정원 조성현장 방문	
12.25.(금) 3일차	안탈리아	09:00 ~ 12:00	·안탈리아 고고학 박물관 견학 ·칼레이치 박물관 견학 ·이블리 미나레(이슬람 철탑)	
		13:00 ~ 18:00	·하드리아누스문 견학 ·케시크 미나레 자미 ·카라알리오올루 공원	
12.26.(토) 4일차	에페소	09:00 ~ 18:00	·안탈리아→피묵칼데→셀쑈(에페소) 이동	신재생 에너지 정책
12.27(일) 5일차	에페소 카파도키아	09:00 ~ 18:00	·에페소 유적 및 고고학 박물관 ·사도요한 교회 ·카파도키아 이동	PC2418 (이즈미르-카파 도키아)
12.28.(월) 6일차	카파도키아 이스탄불	09:00 ~ 18:00	·피레메 야외박물관 ·우치히사르(비둘기 계곡) ·데린구유지하도시	관광정책
		20:15 ~ 21:35	카파도키아→이스탄불 이동	PC4163
12.29.(화) 7일차	이스탄불	09:00 ~ 18:00	·성소피아성당/돌마바흐체 궁전 ·그랜드 바자르 상점가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탑승	도시재생 및 관 광정책, 상권 활 성화
12.30.(수) 8일차	이스탄불	09:00 ~ 18:00	·톱카프 궁전 ·지하저수지 아라메탄사라이 ·블루모스크/히포드럼	
	이스탄불 인천	20:45 ~	·이스탄불→인천 (시차 +6시간/비행시간 9:40분)	대한항공KE956
12.31.(목) 9일차	이스탄불 인천	13:45	·인천도착→순천	



□ 일반 현황

- 국명 : 터키
- 면적 : 783,562km²(아시아존97%, 유럽존3% : 한반도 면적의 4배)
- 인구 : 7,680만명(터키인 80%, 쿠르드인 20%)
- 수도/언어 : 앙카라 / 아랍어, 쿠르드어, 터키어
- 통화 : 터키 리라(TRY)
- 종교 : 이슬람교 (99.8%), 이슬람 이외의 신앙의 자유도 보장
- 정체/의회형태 : 공화제 / 다당제&단원제
- 국 화 : 튜립

□ 세계유산 및 주요 관광지 현황

○ 세계유산(9개소)

- 이스탄불 역사지구 / 모스크와 디브리지 병원 / 피레메 국립공원과 카파도키아 바위유적 / 하츄샤 / 넴루트 댁 고고유적 /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 / 크산토스-레톤 / 사프란볼루 / 트로이 고고유적지

○ 주요 관광지 현황

- 보스포러스 해협 / 성소피아 사원 / 그랜드 바자르 시장 / 돌마바흐체 궁전 / 톱카프 궁전 / 블루모스크 / 술탄아흐메트 사원 / 히포드럼 광장 / 에페소 / 셀레스우스 도서관 / 히드리아누스 신전 / 파묵칼레 석화봉과 노천온천 / 히에라 폴리스 / 가파도키아 / 한국공원 / 아타투르크 기념공원

4 결과 보고

□ EXPO 2016 Antalya 조직위원회 방문

○ EXPO 2016 Antalya 개요

- 기간 : 2016. 4. 23. ' 10. 30.(191일간)
- 위치 : 터키 안탈리아 시 아크수 지구
- 면적 : 1,120,000m²
- 주제 : 꽃과 아이들
- 참가 : 100여개 국가와 30여개 글로벌 기업 참여 예정

○ 한국정원 조성·운영 계획

- 조성면적 : 1,400m²
- 조성내용 : 순천지(池), 우정의 종, 세계 어린이 광장, 취병(翠屏), 순천만정원 등
- 한국정원 준공·개막식 계획
- 국가의 날 및 홍보관 운영 등

- EXPO 2016 Antalya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한 상호간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
 - EXPO 조직위원회 사넴 외즈튀르크(부사무총장)이 직접 박람회의 목적과 진행 상황, 한국정원 조성부지에 대해 설명
 - 양 시의 실무담당자 간의 설계(안)에 대해 상호 논의의 자리를 가짐.
 - 이번 안탈리아 박람회를 계기로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어 낸 순천시와 안탈리아 시와의 우호 교류의 계기를 마련
 - 순천시의회 차원에서도 형제의 나라인 터키의 안탈리아 시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상호 우호교류 체결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
 - 더불어 안탈리아의 관광분야에 화훼 이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 등을 통한 순천의 정원산업 발전 방향 제시
- 순천시의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지 방송 인터뷰 실시
 -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EXPO와 터키에 대한 우리시의 높은 관심에 대해 설명하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상호간의 협조를 강조.
 - 안탈리아 EXPO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양 시간의 우호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발전의 계기를 이룩하도록 순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 EXPO기간중 한국정원과 순천시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
- 한국정원 조성 부지 현지 점검
 - 한국정원 조성부지가 입구에 인접하여 박람회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관람을 유도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임.
 - 한국정원 조성 부지 내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정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



EXPO 2016 Antalya 조직위원회 방문



EXPO 2016 Antalya 현장 방문



EXPO 2016 Antalya 현지 방송 인터뷰 및 조직위원회 방문

□ 터키의 신재생 에너지

- 터키의 이스탄불, 안탈리아, 이즈미르, 카파도키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택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양열 집열판이다.
- 터키에서의 이 집열판은 주로 물을 데우는 데 이용되고 있으나 주로 강제

규정에 의한 설치가 아닌 국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음.

- 풍력, 지열, 조력, 태양열 등 활용가능한 재생에너지가 다양하게 존재함.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드는 풍력과 지열 등은 정부 주도하에 상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태양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는 점차 일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터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지붕마다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

- 터키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자동차 등의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인 즉 환경오염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은 자유롭다는

말이지만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었다.

가정집 곳곳에 설치된 태양열 집열판, 파묵칼레 주변의 바람이 많은 광활한 지대에 설치된 풍력발전 터빈 역시 상당수 설치가 되어 있었다. 터빈 한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지만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모습은 터키 정부와 시민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수 있는 모습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친환경에너지 기반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터키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들은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터키의 관광산업

- 옛말에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본만큼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곳으로 유학을 가고, 연수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일 것이다. 이번 9일 간의 연수를 통해 터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 현황과 관리 방법, 관광자원의 활용 방법 등 대해서 보고 배우며 우리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보다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다양한 부문에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지역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기도 하다.

○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기독교와 이슬람,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발달시켜왔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광자원 확보와 UNESCO지정 세계문화유산 등록 등 지속적인 관리로 국가 경제의 기반으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터키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근간으로, 터키 국민의 개방성과 친절함은 해외 관광객이 터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목화의 성 파묵칼레

- 터키어로 ‘목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묵칼레.

언덕위에 세워진 고대도시인 의미하는 히에라폴리스와 함께 기이한 장관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1988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었다.

- 페르가몬의 시조인 텔레포스의 아내 히에라의 이름을 딴 “히에라폴리스”는 로마와 비잔틴 시대에 가장 번성했으며 주로 왕족과 귀족들의 휴양 도시로 번영했다. 내부에는 신전이나 원형 극장, 목욕탕 등의 유적을 볼 수 있다. 원형 극장은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건설된 원형 극장은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객석은 언덕의 경사면을 이용해 만들었으며, 대리석 기둥으로 파사드를 만든 귀빈석이 남아 있다.

- 석회봉(노천온천)은 석회를 함유한 물이 솟아 넘쳐 암석 표면을 흐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침전되고 응고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암석화된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계속 침전이 진행되어 마치 계단모양의 석회봉이 형성되었다. 매년 1mm정도씩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지금 쌓여 있는 석회봉은 대략 1만 4천 년 전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히에라 폴리스 전학

○ 에페스 유적

- 에페스 유적은 BC 6세기경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에게 해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고대도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이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유적과 신전, 대 원형 경기장, 도서관 등이 존재하고 있다. 에페스에 자리한 아르테미스 신전은 달빛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셨던 곳이다. 아르테미스 신전 중 일부 대리석과 기둥의 잔해만이 남아 있음에도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방식이 돋보인다.

에페스 유적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건축물은 1만 2천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셀수스 도서관이다. 에페스의 폐허 속에서도 전면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건축물중의 하나이다. 또한 24,000여명을 수용하는 대형경기장, 대극장, 항구거리, 항구목욕탕, 공중화장실, 사랑의 집, 대형우물, 성모마리아의 집 등 당시 번창했던 옛 도시의 모습이 남아 있다.

- 하드리아누스 신전 역시 에페스 유적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적 중 하나이다. 최근에 복원된 이 신전은 118년 세워져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쳐졌으며, 코린트식 기둥과 조각들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메두사가 조각되어 있으며 벽면에 에페스 기원 전설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 ☞ 에페소 유적, 파묵칼레 : 대부분의 문화유산(목욕탕, 셀수스 도서관, 대극장, 신전 등)이 복원보다는 현재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의 관점에서 활용되

고 있음. 이는 볼거리 중심의 관광자원 활용보다는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 순천의 낙안읍성, 부읍성, 고인돌공원 등은 충분한 볼거리를 바탕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가하여 일차원적 관광자원을 탈피하고 다차원적 의미를 가진 관광지임을 부각

○ 카파도키아

- 카파도키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말의 도시’라는 뜻이며, 화산 분화에 의한 화산재와 용암 등이 오랜 세월을 거쳐 바람, 비, 눈, 강물, 호수물 등에 의해 침식하고, 지진도 겪으면서 기이한 모양의 암석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뚝 솟은 모양의 기암들로 인해 ‘요정의 굴뚝’이란 별명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에게는 ‘스머프 마을’, ‘스타워즈 촬영지’로 더 익숙한 지역이기도 하다.

동시에 카파도키아라는 도시는 그리스도교들의 강렬한 종교적 신앙심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기암들 사이로 그리스도 교도들이 살던 석굴 교회들이 존재하고 그 내부에는 멋진 벽화들을 볼 수 있다. 그 특이한 기암의 모양을 이용하여 로마시대 박해를 받던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냈던 그리스도교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괴레메 야외박물관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조각품 같은 암석 안을 파서 지은 주거지와 교회들이 있는 골짜기로써 꼭대기에 돌로 된 뚜껑이 달린 원뿔형 집들은 평범한 주택이라기보다는 버섯과 뒤섞인 석순을 닮았지만, 문과 창문까지 달려 있다. 이런 환상적인 기암군은 전세계에서 오직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총면적 약 96km²의 계곡 안에는 이런 기묘한 풍경 외에도 뛰어난 벽화가 있는 360여 개의 동굴수도원이 흩어져 있다.

- 비둘기 계곡으로 불리우는 우치히사르는 60m 높이의 “뽕죽한 성채”를 의미한다. 커다란 바위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여러 바위산이 모여 있어서

견고한 요새와 같은 분위기가 풍기는 곳으로 마치 왕관 모양이, 혹은 창문이 군데군데 박힌 고층건물처럼 산꼭대기에 서 있다. 천연의 요새이기도 한 이곳은 최초로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발견되어 페르시아 인, 마케도니아인들에 의해 개발되고 비잔틴인들이 더욱 효용화 시켰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이어서 방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이곳은 그 내부의 땅속 수 백m까지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떠 올릴 수 있어 더욱 요긴한 요새로 이용되었다.

	
괴레메 야외 박물관	파사바(버섯바위)
	
데린쿠유 지하도시	데브렌트(낙타바위)

☞ 카파도키아(지하도시) : 이 지역은 기이한 형상을 한 기암괴석과 서양 전통의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미를 함께 부여하면서 훨씬 큰 관광 시너지 효과를 발휘.

⇒ 순천이 가지고 있는 송광사, 선암사, 기독교 선교 역사 박물관, 향교 등 종교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의 단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 개발

○ 이스탄불

- 블루모스크는 오스만 시대에 지어진 직경이 27.5m, 높이가 43m에 다다른 규모면에서 터키 최대의 것으로, 맞은편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

슬람 세력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해 그 양식을 모방, 발전시켜 건축한 독특한 형상의 회교사원이다. 그 내부의 벽과 기둥이 푸른색의 타일로 장식되어 있어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돔의 200개를 넘는 조그만 창에는 스테인드글라스가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운 햇살이 환상적인 분위기 낸다.

- 1934년 성 소피아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정식 명칭을 바꾸면서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두꺼운 회칠이 벗겨지면서 성모마리아를 비롯한 비잔틴시대의 화려한 흔적들이 드러났다. 성 소피아 성당의 중앙에 서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기묘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톱카프궁전은 보스포라스 해협의 높고 평평한 곳에 위치한 7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궁전으로 1467년 메흐메트 2세 때 완공되었다. 톱카프라는 말은 터키어로 “대포의 문”이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보스포러스 해협 쪽에 대포가 놓여져 있어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때에는 술탄이 거주하였고, 19세기 돌마바흐체 궁전으로 술탄이 이주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 돌마바흐체 궁전은 19세기 구시가지가 쇠락해 감에 따라 제2의 궁전으로 건축된 것인데 그 호화로움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유명하지만 당시로서는 지나치게 사치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 궁전은 터키공화국의 건설자인 아타투르크 대통령이 1938년 11월 10일 9시 5분 집무 중 사망한 이후로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내부의 시계들은 모두 9시 5분을 가리키고 있다.
- 지하 저수지는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로마시대의 유물로 코린트와 이오니아식 원형기둥 336개가 일렬로 도열해 있는 모습이며 길이 140m, 폭 70m으로 전체 물 저장규모는 7만톤에 이른다.

비잔틴 시대부터 외적의 침입 등으로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이 포위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북쪽으로 20여 km 떨어진 베오그라드 숲에서 물을 끌어다 철마다 저장해놓던 곳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06년부터 33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건설하였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현재와 같은 규모로 증축한 것이다.

가장 안쪽에는 뱀의 머리를 하고 두 눈을 부릅 뜬 “메두사의 머리”를 볼 수 있으나 뒤집어지거나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것 역시 관광객의 관심을 끌만한 부분이다.

- 그랜드 바자르는 비잔틴 시대부터 현재까지 무역의 중심지였다. 비잔틴 시대 이후 터키가 이스탄불을 장악하게 되면서 1455~1461년에 걸쳐 그 곳에는 도시의 경제생활을 부강하게 만들 목적으로 두 개의 주 아케이드가 만들어졌다. 이후 사람들은 활발한 상업활동을 위한 더 많은 장소를 필요로 하였고 그 결과 주 아케이드의 바깥 부분까지 그 영역을 확대시켜 나갔다.

오스만 시대를 거치면서 지진, 화재 등으로 여러 차례 소실되었던 이 곳은 몇 번에 걸친 복구 끝에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지붕으로 덮힌 시장이라는 뜻의 ‘카팔르 차르취’라고도 불리는 이 대형시장은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골목에 18개의 출입구와 4천개 이상의 상점들이 들어서 있으며, 세계의 가장 큰 바자르 중의 하나로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관광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오늘날에도 하루 유동인구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

	
블루모스크	지하저수지
	
그랜드 바자르 전경	보스포러스 해협

☞ 안탈리아 항구 구도심 : 안탈리아는 지중해에 인접한 항구도시이면서 옛 건물의 모습을 간직한 채 웅장하기보다는 작은 건물들이 모여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도서관과 고고학 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함.

⇒ 순천의 중앙동, 향동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 미술전시실, 향교, 한옥 글방 등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도(서울의 이화동 벽화마을, 인사동 거리 등)

☞ 보스포러스 해협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협으로 알려진 보스포러스 해협은 과거와 현재, 부유함과 가난함, 해안가 궁전 등 다양한 모습이 어우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볼거리를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크루즈를 활용한 관광이 발달.

⇒ 순천이 보유하고 있는 낙조가 아름다운 순천만은 전국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적극 활용하여 순천이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 바로 상기될 수 있도록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그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 등의 주요 지점을 연결할 만한 테마를 찾는 것도 필요함.

☞ 터키 사람들의 친절함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외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율이 점차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였으나 시설 이용 측면에서의 불편함, 불친절한 서비스, 바가지 요금 등으로 인해 한국 관광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다시금 찾고 싶지 않은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

☞ 우리 지역에서 열린 2013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역시 성공적인 박람회로 기억된 가장 큰 이유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함과 바가지 없는 박람회를 유도하며 다시 찾고 싶은 순천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

박람회 기간동안 이러한 순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단지 박람회 기간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과 계도 활동을 하여 친절한 시민들의 도시, 바가지 없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재를 적절하게 행사하여 시민의식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광객의 편의성 강조

- 터키는 주요 관광자원 인근에 잔디 광장과 상징물을 배치하고 편의시설인 그늘막과 벤치를 다수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함.

⇒ 요즘 순천은 내일러 시스템을 활용한 젊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으나, 편의 시설(대중교통, 물품보관 등) 기반이 다소 부족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